

이영훈

주어진 10-15분에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듯하다. 이 책이 30년 뒤에도 살아 있을지 아니면 죽어버린 상태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나는 선배세대가 내게 물려준 역사 인식의 방법이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한국사 내지 한국경제사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였다. 일본사와 중국사에 대한 지속적인 참고가 나를 그 같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나는 일본사와 중국사 각 시대의 흐름이나 주요 쟁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나는 토지, 노비, 호, 시장의 역사를 사실의 인과관계에 즉하여 설명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2천년 각 세기에 대한 나름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10세기 이전까지는 몇 세기가 묶여진 왕조 단위의 이미지다. 10-14세기 고려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눈 이미지다. 15세기 조선왕조 이후부터는 세기별이라고 해도 좋다. 1770년대 이후부터는 30년 단위라고 할까. 20세기에 들어서 10년 단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새로운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당돌하게 주장하였다. 14세기까지 노비제는 그리 발달하지 않았다. 15-17세기는 노비제의 전성기였다. 14세기까지 토지소유는 정치적 수조권이 가산화한 것이고, 개인 재산으로서 토지소유는 15세기부터이다. 고려와 조선의 전호는 왕토를 차경하고 있다고 의제화한 자작농민을 가리켰다. 고려와 조선에서 지주란 말은 없었다. 가족이란 말도 없었다. 한국사에서 소규모 세대가 분출하는 것은 2-4세기의 일이고 국가구성의 단위로 제도화하는 것은 15세기이다. 그 전에는 촌이나 세대복합체가 국가구성의 기본 단위를 이루었다. 15세기 이후 농촌경제사는 소농이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이었다. 17세기 후반에 초보적 수준의 시장경제가 대두하였다. 자본주의망야 같은 것은 없었다. 시장경제는 소농자립을 촉구하였다. 닫힌 경제에서 성장은 위기의 출발이기도 하였다. 증가한 인구증가로 생태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1770년 이후 위기가 가시화하였다. 그 때까지 지배적 경제체제는 국가적 재분배경제였다. 19세기, 특히 1840년대 이후 기존의 체제를 허무는 위기가 습래하였다. 동시대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경제사의 뚜렷한 특징은 국가가 토지와 인구를 분리하여 지배하였다는 사실이다. 개별 인구에 특정의 역을 부과하는 인신지배체제가 어찌해서 19세기까지를 관철했는지는 가장 설명하기 힘든 대목이었다.

20세기 경제사는 민족주의 집단감정의 저항으로 논란이 많지만, 실제의 내용은 명쾌하다. 일정기에 걸쳐 시장경제의 제반 제도와 기구가 이식되었다. 그리고 근대적인 경제성장이 개시되었다. 연간 3%의 실질 성장을 이룬 일본경제에 충실히 포섭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일본으로의 수출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다. 이 같은 성장의 동력이나 메커니즘은 독립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세계체제 속에서 더욱 큰 규모로 실현되었다. 20세기의 근대적 성장과 19세기 이전의 경제사를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나는 19세기까지의 소농경제가 축적한 인적 내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경제는 다른 개도국에서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기업가능력을 보유했는데, 그것은 전통사회의 유산이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근대적 개인과 사유재산권의 이념이 취약한 것, 인간 간의 사회적 신뢰가 낮은 수준인 것, 인간들의 생애 전략과 가치가 중앙집권적 위계에 충실한 것, 정부가 경제에 균림하는 국가주의 특질이 강한 것 등은 전통사회가 물려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유산이다.(2018년 1월 29일)